

경운대, 농촌재능나눔대학별 특화마을 조성사업재능기부

박용기기자 | 승인 2022.10.11 | 12면



경운대학교 물리치료학과와 멀티미디어학과 학생들이 농촌재능나눔 대학별 특화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의성군 단밀면, 무을면 일대 마을에서 지난 9월부터 한달 간 벽화그리기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. 학생들이 의성군 단밀면에서 기억의 길 조성 활동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 경운대 제공

경운대학교(총장 김동제) 물리치료학과와 멀티미디어학과 봉사동아리 약 40여 명이 의성군 단밀면, 무을면 일대 마을에서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벽화 그리기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.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한 농촌 재능 나눔 대학별 특화 마을 조성사업이다.

10일 경운대에 따르면 경운대 봉사동아리 학생들은 △농촌 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 그리기 △신체 활동 및 놀이를 통한 인지능력 향상 및 체력증진 활동 프로그램 △가구별 문패 제작 및 설치 △태양광 가로등 설치 △치매 예방을 위한 기억의 길 조성 △소방 안전 교육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펼치며 농촌 마을 전반에 걸친 봉사활동을 펼치며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왔다.

경운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의성군 이웃사촌 복지센터-단밀면사무소-단밀면 위중1리와 4자 간 협약을 체결, 농촌 재능 나눔을 통한 특화 마을 조성 민·관·학 협의체를 구성했다.

서병도 경운대 물리치료학과 교수(봉사동아리 지도교수)는 “봉사활동을 통해 미래에 노인 정책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할 학생들이 농촌의 상황과 어르신들을 이해할 기회가 될 것”이라며 “학생들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계속 간직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한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경운대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제4회 대한민국 농촌 재능 나눔 대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(단체상)과 2020년 대학생 봉사협회의 우수 동아리상 수상, 선산 보건소 지역사회협업 활성화 감사패, 의성군 안계면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.

저작권자© 경북일보 - 굿데이 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박용기 기자